



Pixabay free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 하셨다.”

2026 년 부활절

사랑하는 주님 안의 벗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직전의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깊은 혼란 속에 빠져, 자신들이 듣고 경험한 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지만, 아마도 그들의 이해를 초월한 그 사실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기쁨이 넘쳐나야 할 자리에 오히려 혼란과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줄곧 이야기하던 바로 그분이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은, 그들이 이전에 들었던 부활 소식과 그분을 만난 제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당혹감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너무나 놀라운 사실로,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만남에 준비되지 못했고, 그분이 진정 그분이며 살아계시고, 그들에게 돌아서고 계심을 확신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인내심 가득한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영혼이 그 사실을 따라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자들의 부활하신 주님 체험을 우리 일상으로 풀어낸다면, 우리에게도 종종 당혹감에 빠지게 되는 상황, 끊임없이 맴도는 질문이나 끈질기게 괴롭히며 의심을 야기하는 상황이 있지 않은가요?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개인적인 한계에 부딪치거나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는 순간들,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복잡한 세상의 일부로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며 다음 단계를 모색하고 미래를 성찰하며 관점을 발전시키려 애쓰는 순간들이 아닐까요? 이 모두는 우리에게 신뢰와 믿음, 희망이 뒤섞인 가운데, 때로는 조용한 두려움과 불확실, 어쩌면 의심의

흔적이나 좌절감, 비관주의가 스며들게합니다. 현재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 너머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만드는 생각과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렇게 휩쓸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맥락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 나타나시어 죽음을 이기심을 증언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역시 그분을 지나쳐 버리거나 오해하고 말까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인내 어린 손길에 우리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우리를 그분의 평화와, 단 한 번 온 인류를 위해 죽음을 이긴 생명의 기꺼이 응답하는 존재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손길에 말입니다.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기쁨을 향해 우리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를 간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며 우리 가운데 실제로 현존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께 민감해지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이 부활절 아침의 부드럽고 희망찬 빛으로 변모하여 우리 마음이 기쁨과 희망, 신뢰로 가득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극복과 부활하신 분의 평화가 내세를 위한 값싼 위안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에 개입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접근할 지를 강력하게 결정하는 것임을 온 존재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에게, 공동체로서, 피조물의 일부로서 당신의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무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버림받거나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든 기쁨과 약속, 모든 불확실성과 의문들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시편 저자와 함께 기뻐합니다: "주님, 제 마음 다 하여 찬송하며 당시의 기적들을 낱알이 이야기 하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시편 9,2-3).

여러분 모두, 축복과 기쁨이 충만한 부활절 맞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Veronica Fulmann CJ*